

# 한·중·일 역사문화경관 비교를 통한 상상적 환경 복원

박경복\* · 심우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과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조경학연구실

## 초 록

본 연구는 서양의 과학적·합리적 이성주의에 의해 단절된 동양문화의 상징적 사유체계에 내재된 상상적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상적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의 고대도시인 서울, 북경(北京), 교토(京都) 등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례도시의 역사·문화경관을 분석하여 상상적 환경요소를 도출하고자 해석학과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동북아시아 삼국(한·중·일)의 역사문화경관 비교와 재해석을 통해 그 속에서 내재된 상상적 환경을 도출한 결과, 각 도시에 내재된 장소의 정신과 자연환경요소가 인문환경요소로 반영되어 구조화되었으며, 개별요소들이 결합하여 조직화되었고, 점진적으로 장소(場所)의 혼(魂)은 더욱 성화(聖化)되었다.

본 연구는 인간생활의 실존적(實存的) 장(場)인 도시공간을 상상적 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비교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삼국의 역사문화경관에 내재된 상상적 환경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각 도시별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특수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키워드 : 상상적 환경, 장소의 혼, 현상학

## 1. 서론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이미 풍부한 지성과 상상력을 가진 존재로서 행동하고 있었다. 무의식의 활동(꿈, 환상, 환각, 과대망상 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古) 인류는 그러한 활동의 강도와 풍성함에 있어서 현대인과 다르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최근 고생물학에서 이루어진 여러 발견들은 인류와 문화의 기원을 점차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3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정신)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Eliade, 1976).

자연에 투영된 투영물들은 차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제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무의식에는 보편적인 원형이 간직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것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그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근원적 유형, 즉, 원형이 일으키는 감정은 신성력을 내포한 감동으로서 초인적이며 비인간적인 충동인 것이며, 이것은 또한 인간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으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부여된 선험적 조건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오늘날 기계문명 시대에 이르러 지극

히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의 발달에 따라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내재하는 심오한 정서적 에너지는 없어져 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정활동 기능의 일부이며, 논리 이전의 심상언어로서 잊어버린 원형의 이미지를 재생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근원적인 마음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던 원시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음 발전과정에서 떨어져 버렸던 모든 옛 것들, 즉, 환상, 공상, 고대의 사고방식 그리고 기본적인 본능 등을 환원시켜 주기 때문인 것이다(임월영, 1981).

우리 문화인이 가진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적 환경이요, 또 하나는 사회적 환경이다. 자연적 환경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일(日)·월(月)·산(山)·천(川)·해(海)·공기·기후·토지·생물·광물 등)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 관계를 가진 모든 현상이 포괄되고, 사회적 환경에는 우리 인류 생활이 산출한 모든 환경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모든 환경이 종속된다. 그런데 원시인에게는 이러한 2종의 환경 밖에 제3의 환경이 있었다. 그것은 정령의 세계였다. 때로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였지만, 대

체로는 병과 죽음을 주는 환경이었다. 이 환경은 오직 사람의 상상(想像)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상상적 환경(想像的 環境-imaginary environment)'라고 명명(Keller, 1915)한바 있다.

이러한 무의식 세계의 정신활동을 토대로 동·서양에서는 고래(古來)로부터 인간이 현실세계에 구축하고자 했던 이상세계의 원형(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에덴의 동산, 천국(天國), 아르카디아, 동천복지(洞天福地), 선경(仙境), 무릉도원, 승지(勝地), 낙토(樂土)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적 환경(想像的 環境)의 개념을 Keller 교수가 명명한 정령의 세계를 포함하여 고대 원시인으로부터 현대 문명인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상상(想像)의 환경(環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상적 환경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현된 역사문화경관의 고유 양식을 창조한 사상적 배경, 자연환경요소, 인문환경요소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상상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거의 양식의 예(例)에서 현재의 작품에 도움이 될 영감(靈感)과 정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문화의 우수성이 결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삼국(한·중·일) 고대도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였으며, 사례도시 속에 역사·문화경관이 구현된 공간, 자연환경요소, 인문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전통사상과 종교적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환경설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서양의 과학적·합리적 이성중심주의에 의해 단절된 상상적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현대 학문에서는 환경설계의 주요 범위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환경 및 대상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환경설계는 조경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설계에 주요 관점을 두면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보조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환경설계의 분석요소는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상상적 환경을 포함한다.

상상적 환경의 배경에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시대의 문화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문화경관이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상적 환경을 추출할 수 있는 고대도시의 역사·문화경관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북경, 일본의 교토 등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문헌조사와 더불어 현지사례답사를 통해 역사·문화경관을 분석하였다. 시간적으로는 도시 형

성과정에 관계된 시간요소를 분석하여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역사적 변천 과정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구조적 변화과정과 경관 특성을 파악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본 연구주제인 상상적 환경과 관련된 사상적 배경으로 원시신앙인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비중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외에 신선사상,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사상, 삼재사상 등과 원시신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역사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분석방법으로는 경관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파악하며, 경관을 인간의 실존적 장으로 보고 경관이 조성된 의도,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데 관련된 해석학(hermeneutics)적 접근방법과 경관의 경험을 통하여 경관의 본질 혹은 근원적 의미를 밝히는 데 관련된 현상학(phenomenology)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자연환경요소는 동물, 식물, 지형, 기상, 상징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공간과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인문환경요소는 도시, 건물, 시간, 공간, 사상분야로 분류하여 구성요소와 공간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설계이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간을 구조적 측면, 형태적 측면, 색, 방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심, 축, 영역, 경계로 나누어 공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건조물, 기물, 문화요소 등 도시의 구성요소 전반에 걸쳐 다루었다.

## III. 결과

### 1. 입지(立地)

한·중·일 삼국에서의 경관적 특성은 위도상(緯度上) 북위(北緯) 30°~40°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양으로부터의 비슷한 조건에 있다. 이러한 조건은 지구경관 측면에서 보면 기후, 식생, 토양, 지질, 지형, 수문(水文) 등에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국은 반도, 중국은 내륙,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에 의해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백두대간에 의해 수문이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진 반면, 중국의 주요 강은 히말라야산맥에 의해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후지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수문이 형성되어 있다. 삼국의 공통적 특성은 지형기복이 심하며 산이 많고 계곡이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악승배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의 발달을 가져오며, 도시의 입지선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삼국의 주요 도시인 서울·북경·교토의 입지특성을 보면 북위 35°~37°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분지(盆地)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B.C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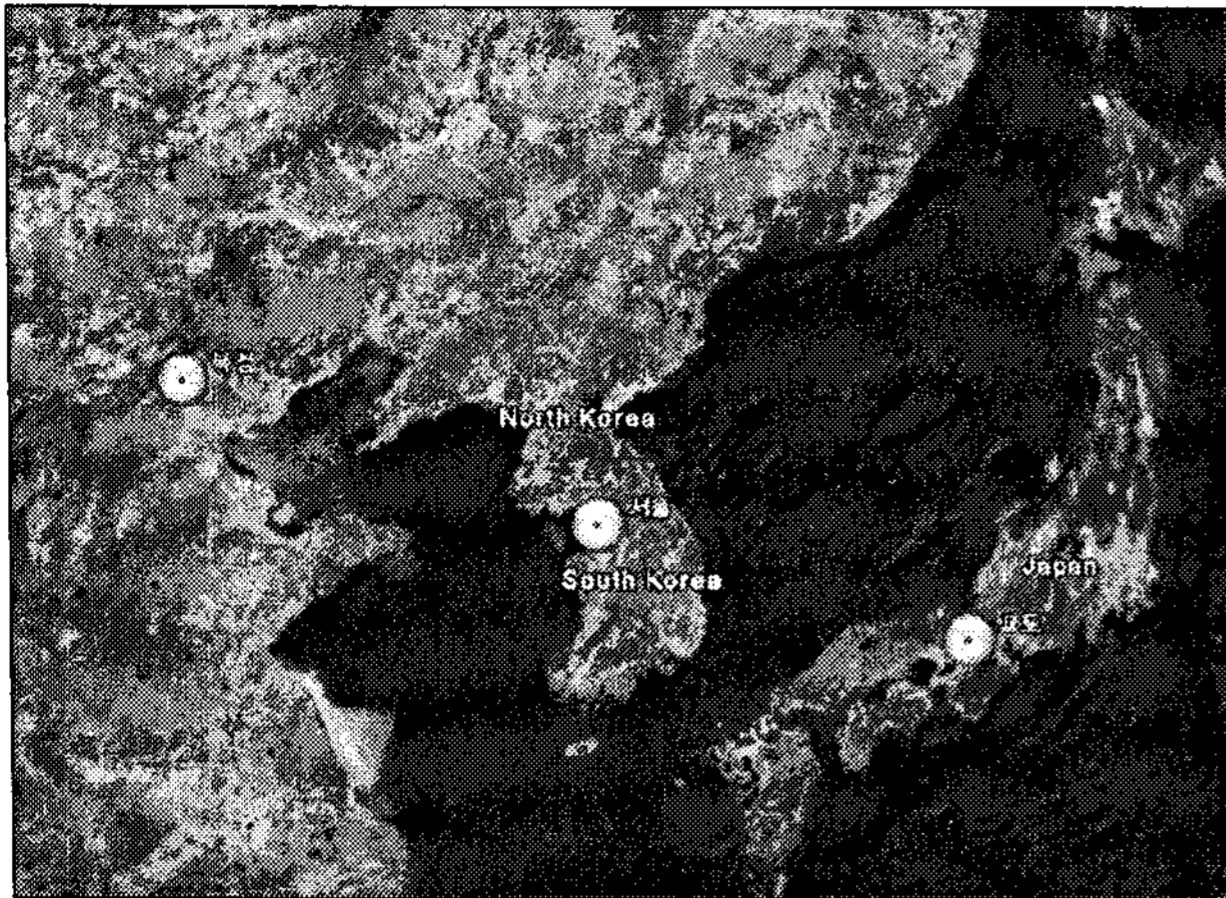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지정학적 위치  
 자료: Google Earth Program Data, 2005.

년)부터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A.D 1394~1910년)에 현재 규모의 도시구조를 이루며 발전하였으며, 북경은 구석기시대(B.C 18000년)부터 요(遼), 금(金), 원(元)을 거쳐 명(明)·청(淸) 시대에 현재의 규모에 이르는 도시의 규모를 형성하며 발전해 왔다(李名玉, 2003). 교토 역시 B.C 200만 년 전 교토분지 생성 이후 구석기시대를 거쳐 죠몽시대(繩文時代), 야요이시대(彌生時代)를 거쳐 헤이안시대(平安時代: A.D 794~1185년)에 도시구조가 정점에 이르게 된다(室谷文治, 1994). 이렇듯 삼국의 주요 도시는 주거지로 유리한 자연환경조건 아래서 역사적 층위를 달리하며 중첩되어 조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2. 공간구조(空間構造)

자연지형조건이나 수문에 의해 도시공간의 외형적인 공간이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음양오행사상 및 풍수지리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풍수지리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 바탕이 된 동북아시아 삼국에서는 인간이 도시나 사찰(신전), 주택, 분묘 등을 조영하면서 땅의 형태와 향(向), 그리고 그 장소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표 1. 한·중·일 사례도시의 입지 비교

구분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교토)	비고
입지	위도	N 37° 34' 42"	N 39° 54' 56"	N 35° 01' 26"
	경도	E 126° 58' 37"	E 116° 23' 27"	E 135° 45' 43"
	시간	조선시대: 1394~1910	명·청대: 1368~1911	헤이안시대: 794~1185
	지형	분지	분지(습지대)	분지
하천	청계천, 한강	蘇州河	大堰川, 鴨川	

장소의 혼(地氣·靈氣·精氣: Norberg-Schulz, 1984)등을 관찰하여 판단하였다.

사례도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서울)에서는 자연의 산(山: 백악산, 인왕산, 낙타산, 남산, 관악산)에 의해 둘러 쌓이고, 물(청계천, 한강)이 발달한 장소에 도시를 건설하고,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온 지기(地氣)를 받아 영기(靈氣)가 충만한 장소에 근정전(勤政殿)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곧, 도시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으로 상징화되었다.

중국에서는 산보다 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화원(頤和園)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水: 昆明湖)에 비해 산(山: 萬壽山)의 세(勢)가 약한데, 이 산 또한 호수를 파낸 흙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望天星編, 1995). 수기(水氣)도 한국이 동적(動的)인 자연유하(自然流下)인데 비해 중국은 정적(靜的)인 호수형태이다. 또한, 물을 활용하여 도시 주변을 인공수로인 해자(壕字)를 활용하여 공간의 경계를 구분짓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중심요소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북경)에서도 도시의 중심에 태화전(太和殿)을 건립하여, 우주의 중심을 상징화하고 있다.

일본 도시 성립에는 중국의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교토의 경우에는 중국의 낙양성을 모방하여 건립(Shinichi Masuishi, 1998)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주요 성(城)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해자(壕字) 역시 중국에서 도입된 요소로 파악된다.

중심요소로 자리하는 주요 건축물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신성(神性)을 나타내고 있다. 장소와 영역성은 경계요소인 담장, 해자, 성벽, 도로 등에 의해 구분되어 공간의 이용주체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전각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축(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남북 중심축(子午線 軸)을 사용하였으며, 일본도 역시 같은 개념을 수용,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오선 축을 중시하였으나, 자연지형 축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축과 통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의 조성에서도 한·중·일은 공통적으로朱雀大路(朱雀大路)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평지에 직선형 도로를 조성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관악산의 화기(火氣)가 궁성(宮城)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풍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로를 굴절시켰다.

경계요소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인위적인 성벽, 해자(壕字) 등을 조성한 반면, 한국의 경우는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성벽을 수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계부에 조성되어 입구 역할을 하는 문(門)은 중국, 일본은 격자형 도로망에 방위별로 정형적으로 조성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의 중요성과 더불어 문(門)의 방향, 구조, 형태 등에 자연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풍수지리적 결점을 보

표 2. 한·중·일 사례도시의 공간구조 비교

구분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교토)	비고	
공간구조	중심	어좌(御座), 근정전, 궁성	보좌(寶座), 태화전, 자금성, 황성, 천단	내리(內裏), 어소(御所)	통치자의 공간
	영역, 장소	5부 52방, 3문 3조	황성, 자금성, 해성, 5문3조	조(條), 방(坊) 좌경, 우경, 상경, 하경	
	경계	삼각산, 낙산, 인왕산, 목멱산, 성곽	연산(燕山), 해자	동산(東山), 북산(北山) 남산(嵐山), 구산(龜山) 해자	풍수, 음양오행, 배산임수
	축(軸), 통로	북악산→관악산 축(軸) 계좌정향(癸坐丁向) 주작대로	남북 축(軸) 간선도로, 골목길 주작대로	남북 축(軸), 통(通), 주작대로	

완하는 비보(裨補)요소로서 문(門)을 활용한 경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도시의 사신사(四神砂) 중 좌청룡(左靑龍)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문(東門)의 이름을 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하여 다른 방위의 문에는 없는 용(龍)의 형상을 한 문자인 지(之)자를 첨가하여 비보(裨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확연히 다른 삼국의 자연 환경적 특징이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서는 공통성과 차별성이 명확히 구분된다(표 2 참조).

### 3. 구성요소(構成要素)

도시, 성(城), 개별 건축물, 신전(神殿) 및 단(壇), 묘(廟) 등은 신앙 주체 및 거주 주체의 특성에 맞게 전통적 세계관에 따른 원형 도상이 구현되었다. 예를 들면, 하늘과 관련된 공간 및 요소는 원형(圓形)으로, 땅과 관련된 공간 및 요소는 방형(方形)으로, 사람과 관련된 공간 및 요소는 각형(角形)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간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순환경로에 따라 결정되는데, 더불어 북극성이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역사·문화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자연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며, 지형적 특성으로 대지, 산, 동굴, 숲, 계곡, 강, 하천, 호수 등이 주요 요소이다. 기상요소로는 하늘, 태양, 달, 별, 구름, 눈, 기(氣) 등이 있고, 상징요소로는 공간적 측면에서 자미원, 오행요소로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등이 도출되었다.

인문환경요소로는 도시, 성(城), 다리, 도로, 성벽, 해자, 원림 등과 신전, 제단, 묘(廟), 상(像), 향로, 탑, 비(碑), 건축물, 문 등이 있으며, 개별 건물 내에서는 바다, 벽, 기둥, 천장, 지붕의 형태, 색, 구조 등이 주요 요소이다. 세부 요소로는 계단, 거울, 우물, 샘, 연못, 정원 등이 있다. 또한, 분묘, 거석(열석), 회화요소(벽화)와 문화요소로 세시풍속 등이 있다.

시간요소 역시 역사·문화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는 인류문화와 더불어 층위를 달리하며 누적,

구성되어 왔으며, 장소성과도 연관이 깊다. 더불어 시간요소는 공간구성요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봄과 아침을 상징하는 요소는 동쪽, 여름과 한낮을 상징하는 요소는 남쪽, 가을과 저녁을 상징하는 요소는 서쪽, 겨울과 밤을 상징하는 요소는 북쪽에 배치하였다. 1년 중 주요 절기에 행해지는 세시풍속도 자연환경요소(태양, 달)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주요 건축물의 배치도 시간요소와 자연경관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도시구성요소에 자연환경요소와 상징요소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자연환경요소의 상징성이 구성요소의 구조, 형태와 색, 방위 등에 반영되어 공간별, 요소별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을 상징하는 공간에는 원형의 평면형태에 원형기둥, 원형천장 등으로 표현되며, 땅을 상징하는 공간에는 방형의 평면에 방형의 기둥, 방형의 천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태양을 상징하는 요소는 동쪽에 배치하고, 달을 상징하는 요소는 서쪽에 배치한다. 공간적으로는 중심화 될수록 수직적 상승체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의 공간적 이동과정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4 참조).

동북아시아 삼국 주요 도시의 역사·문화경관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분석의 틀로 삼아 연구한 결과, 관념적으로 이해되어 온 상상적 환경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또한, 각각의 장소가 갖는 정신과 자연환경요소의 성질이 공간에 투영되어 구조적으로 요소들이 결합하여 조직화되면서 장소의 혼은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생활의 실존적 장(場)인 도시공간을 구조화

표 3. 한·중·일 사례도시의 구성요소 비교

구분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교토)	비고
구성요소	도시	성, 다리, 성곽, 단(壇), 묘(廟), 능(陵), 정원	성, 다리, 성벽, 해자, 단(壇), 묘(廟), 능(陵), 원림	성, 다리, 성벽, 해자, 묘(廟), 정(陵), 정원
	건조물	전(殿), 당(堂), 루(樓), 각(閣), 헌(軒), 정(亭), 문(門)	전(殿), 당(堂), 루(樓), 각(閣), 헌(軒), 정(亭), 문(門)	전(殿), 당(堂), 루(樓), 각(閣), 헌(軒), 정(亭), 문(門)
	구조물	우물, 샘, 굴뚝, 연못	우물, 샘, 굴뚝, 호수	우물, 샘, 연못
	기물	향로, 상(像)	향로, 상(像), 탑(塔), 비(碑)	상(像), 탑(塔)
	자연환경요소 (기상, 동물, 식물)	하늘, 태양, 달, 별, 구름, 눈, 사슴, 두루미, 거북이, 용, 봉, 해태, 소나무, 버드나무, 매화나무, 모란, 연(蓮)	하늘, 태양, 달, 별, 구름, 눈, 기(氣), 소 사자, 두루미, 용, 봉, 황기린, 소나무, 버드나무, 매화나무, 모란, 국화, 측백나무, 연(蓮)	하늘, 달, 별, 구름, 눈, 소, 호랑이, 양, 사슴, 두루미, 거북이, 용, 봉, 소나무, 동백나무, 매화나무, 연(蓮)
	형태(形態) 요소	원형, 방형, 각형 (사각, 십자, 육각, 정자형, 팔각)	원형, 방형, 각형 (사각, 십자, 정자형, 팔각)	원형, 방형, 각형 (사각, 육각, 정자형)
	색(色) 요소	오방색 (흑·청·적·백·황)	오방색 (흑·청·적·백·황)	금색
	문화(文化)	세시풍속 (원단(元旦), 상원(上元), 단오(端午), 칠석(七夕), 백종(百種), 추석(秋夕), 동지(冬至), 제석(除夕))	세시풍속 (춘절(春節), 원소절(原宵節), 단오절(端午節), 칠석(七夕), 중추절(仲秋節), 동지(冬至))	세시풍속 (お正月, 칠석(七夕), お盆, 사주(師走))

표 4. 한·중·일 사례도시의 조영배경 비교

구분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교토)	비고
조영배경	사상(思想)	애니미즘, 토데미즘, 신선사상, 풍수지리, 음양오행, 삼재사상, 조상숭배, 유교 불교, 도교	애니미즘, 토데미즘, 신선사상, 풍수지리, 음양오행, 삼재사상, 조상숭배, 유교 불교, 도교	애니미즘, 토데미즘, 신선사상, 풍수지리, 음양오행, 삼재사상, 조상숭배, 불교, 신도

된 분석 틀을 가지고, 상상적 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동북아시아 삼국의 전통도시공간의 역사문화경관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역사·문화경관에 내재된 상상적 환경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국가별, 도시별 차별성을 세부적인 요소까지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대사상사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속학 분야, 종교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환경설계이론과 접목시키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서양 역사문화경관과의 비교연구로 상상적 환경이 범세계적인 보편적 문화환경이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여 환경설계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인용문헌

1. 임월영(1981) 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望天星編(1995) 頤和園 The Summer Palace. 中國世界語出版社 北京.
3. 室谷文治(1994) Kyoto - Its Cityscape Traditions and Heritage. Process: Architecture 116.
4. Shinichi Masuishi(1998) The Architectural Map of Kyoto. TOTO Shuppan.
5. 李名玉(2003) 中國的世界文化與自然遺產. 京中玉國際服務有限公司.
6. Eliade, M.(1976) Histoire des Croyances et des Idees Religieuses.
7. Keller, A. G.(1915) Societal Evolution. New York, Macmillan Co.
8. Norberg-Schulz, C.(1984) Genius Loci. New York, Rizzoli.